



바라밀현장 용주사 사찰 안내팀

“여기는 용주사입니다. 법당에는요, 부처님이 계시요. 아서 들어가 보세요.”

경기도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은 '미래의 포교사' 네살짜기 가연이가 지킨다. 인형보다 불상을 더 좋아하는 녀석의 꿈은 탐이나 범종에 숨겨진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아빠가 18년 동안 해온 일처럼.

용주사에는 가연이 아빠 권중서 포교사(49)를 비롯, 8명으로 구성된 사찰안내팀이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경기 사찰안내 1팀' 팀장 권중서씨 바로 그를. 주중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일요일만큼은 용주사 지킴이로 하나가 되는 '불교문화재 안내 전문 포교사'들이다.

비록 일요일만큼을 함께 하는 인연이라 해도 이들의 정은 남다르다. 여주 신록사에서 2년 동안 문화재 안내를 돕다가 만난 팀원들은 지역의 문화재를 골고루 소개하고픈 욕심으로 용주사 안내를 시작하게 됐다.

“용주사는 원래 신라시대의 갈양사터에 아버지 장현세자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정조가 세웠습니다. 효심과 불심이 어우러진 국가적 차원의 사찰이지요.”

8월24일, 권중서 포교사(49)가 지정전 앞에서 설명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부모은중경>이 탐의 조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조선의 역사가 오늘의 현실이 된다. 법당에 들어서서는 감로탱의 설법을 한없이 풀어내고 범종과 앞에서는 시대의 장인이 되는 권 포교사다.

“젊었을 때 불국사에 갔다가 다보탑을 보며 아내에게 이리저리 설명을 하다 문득 주위를 돌아보니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다 싶었죠.”

권 씨는 그 길로 수원포교당 거사회를 창립하고 성지순례에 나섰다.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체화한 지식 덕분에 신특사 사찰안내도 시작할 수 있었고, 늦까지로 뛰어든 동국대 불교미술 석사과정도 무난히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불교문화원에서 불교미술에 관한 강의로도 활 정도다.

권 포교사의 이 같은 열정에 힘입어 용주사 사찰안내팀의 공부와 연구량은 나날이 늘어간다고 한다.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에 강도 높은 학습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사찰에서 탐내는 '문화재 도우미팀'이 됐다.

“문화재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절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보살님들의 자비를 느끼게 해주

하는 일 달라도 일요일은 한 팀

지역 문화재 소개하고 싶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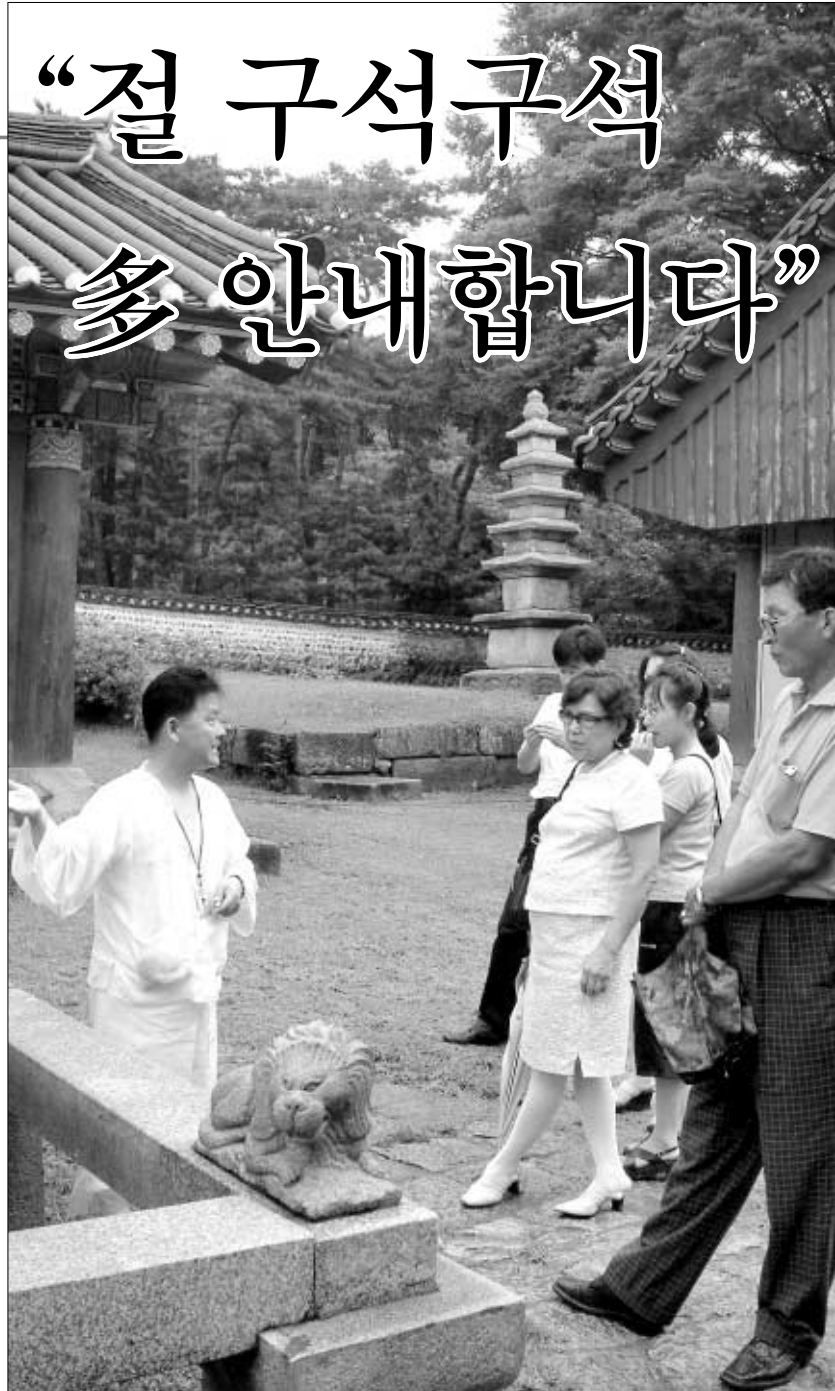
이론, 경험 갖춰 여러사찰서 탐내

는 일이지요.”

허만해 포교사(58)는 생활상담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서인지 문화재 포교만큼이나 일상 속 자비실현을 중시한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절 주위를 배회하는 '어게 처진 중년의 남자'를 자주 보게 된다는 허 씨는, 범종의 걸모습 설명에 급급하기보다는 천년의 법음을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주중에는 여주교도소 법회도 돕고 수원포교당 합창단에서 부처님 마음을 전하기도 하는 사찰안내팀. 그들이 가슴에 박고 살아간다는 <회엄경>의 한 구절이 인상적이다.

“진리를 구하는 진실한 이는 들은 대로 실천하기에 힘쓴다.”

화성=강신재 기자



“절 구석구석 다 안내합니다”

◇용주사사찰안내팀장 권중서(맨 왼쪽) 포교사가 탐방객에게 탐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조앤 헬리팩스 (Joan Halifax)

시민운동·교도소 포교 선구자

“자연스러운 명상은 다른 모든 노력들을 풍부하게 합니다. 하루 두 번의 수행은 구명(救命) 활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나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늘 새롭게 반응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사가 맞았듯이 '초발심(初發心)'으로 말입니다. 글래스턴 노사는 그것을 '모르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자아를 잊는 수행으로부터 가능합니다. 두려움 없는 이 마음은 '저절로 그러함' 마음이기도 합니다.” <생산적인 어두움> 중에서

프랑스 자두마을에서 전 세계에 평화사상을 전하고 있는 탁남한 스님의

(The Ojai Foundation)를 설립했다.

이같은 의료활동과 동시에, 조앤은 뉴멕시코 산타페의 체로고르도산 아래 등지를 트루파야(Truaya)선원을 창건했다. 이 곳에서 그는 수행과 불교강의에 몰두하는 한편 뉴멕시코 형무소의 중죄인과 교도관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위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작가이자 시민운동가, 학자,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인 그는 미국에서 약명 높은 교도소들을 대상으로 '형무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사형수들과 무기수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면서 명상을 지도하

고 있다. 우파야선원에서 그는 급하고 거친 사람들의 심성을 평안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자신 제자들에게 시련한 산들바람 같은 역할을 해왔다.

조앤은 '스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어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스승은 안내자



◇승산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은 조앤법사.

환경, 건강위한 NGO활동 동시에

'형무소 프로그램' 통해 명상지도

소 포교의 선구자로 이름났다.

조앤은 1960년 후반부터 불교 수행을 시작해 1976년, 한국의 승산 선사로부터 계를 받았다. 그후 그는 1990년, 탁남한 선사의 법제자가 되어, 집현종의 법사가 되었다. 조동종 선사들 과도 교류가 깊은 그는 베트남이 글래스턴 노사와 지수 홀츠 선사와 함께 '평화주의 선종'의 공동 설립자가 되기도 했다.

조앤은 1970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일해왔다. 이때부터 그는 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부 플로리다와 아시아, 아메리카 토착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했다. 1979년, 그는 자신이 1990년까지 근무했던 오자이재단

가 아니라 오히려 여행자이자 참 자기를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숲속의 '길없는 길'을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들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지도책은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배움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붓다와 예수의 정신에 대한 직접적인 깨달음은 '당신 자신이 등불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조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면서 아난에게 말씀하신 '진리와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法燈明 自燈明)'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계속)

김재경 기자

“봉사하면 젊어져요”

적십자 연화봉사회



◇연화봉사회 회원들이 천우자애원에서 국악공연을 펼치고 있다.

“남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만해져 있었습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들이 나를 도왔던 것이더군요.”

적십자 연화봉사회 회장 오권자(43)씨는 자기의 일을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북 경주 천우자애원에서 자원봉사를 9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그를 포함한 연화봉사회원

9년째 경주 천우자애원 도와

목욕, 수지침, 국악 공연까지

들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다.

적십자 포항지부 안에 소속된 33개 단위 봉사회 중 하나인 '연화봉사회'는 '포항제철 효자단지 부인회'에서 3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독립한 단체. 남편들이 포항제철을 그만두면서 모임을 따로 꾸리게 됐지만, 회원들의 봉사활동은 오히려 활발해 졌다.

“우리 회원들이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천우자애원에 고마워해야죠.”

그러나 천우자애원 관계자의 말은 다르다. 매주 목요일마다 수족을 못쓰는 어르신들을 비롯, 고혈압에 반신마비까지 온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를 펼친 것만 해도 벌써 9년이다. 이와 별도로 이어온 수지침 봉사도 4년째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악을 전공한 회원들은 철마다 창과 민요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여 천우자애원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회원들 역시 손을 너머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지만 어르신들의 '기쁨조'를 자청하고 나섰다. 오히려 공연을 준비하며 젊어지는 것 같아 행복하다는 연화봉사회 보살들. 그들의 미소가 아름답다. (054) 745-4900

강신재 기자 thalishy@buddhapia.com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제20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시는 스님, 법사님, 선생님 그리고 각 분야의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들로 새롭게 짜여진 이번 20기 강좌는 어린이, 청소년 교화에 자신감 고취는 물론 생활의 즐거움은 2배로 늘어나며, 불교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기 간 : 불기 2547년 9월 22일 ~ 11월 30일 (특강·종합실습 포함 중 72시간)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7시 ~ 10시 (토요특강 2회)
- 장 소 : 서울노인복지센터 (3호선 안국역 5번출구 100m)
- 대 상 :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불자
- 강좌내용 : 이론 - 레크리에이션개론, 스피치법, 모임의 진행, 프로그램작성
교리부문 - 불교지도자론, 포교론, 포교방법론
댄스부문 - 포크댄스, 레크리에이션댄스, 스포스댄스
음악부문 - 노래 지도법, 율동 지도법, 잔불가
생활부문 - 만들기, 종이접기, 풍선데코레이션
게임부문 - 실내·실외게임, 전래놀이, 게임의 응용
야외활동 - 캠프, 오리엔티어링, 야외장비사용법

■ 참가비 : 350,000원 (교재, 재료비, 실습비 포함)

■ 온라인접수 : 국민은행 006-01-0801-770 / 농협 053-02-177171

■ 문의 : ☎ 02)738-7860, 739-4967 FAX. 738-7863 (http://cafe.daum.net/burec)

※ 특 전 - 수요강좌 무료수강(강의 기간 내) - 교재 행사(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 2급 지도자 응시자격 부여(과정 60시간 이상 이수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남골추모함 안내

남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남골추모함 (금색) 연꽃문양 남골추모함 (동색) 연꽃문양 남골추모함 (철보) 내호함 (도자기)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남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남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골추모함 같은 정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남골추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남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남골추모함은 남골당과 남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남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남골당이나 남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남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남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